

고등학생용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세상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5월 2일 제정〉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세상

1차시

01. 아동학대는 무엇일까? · 2
02.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권리 · 2
03. 아동학대를 찾아라 · 3
04. 아동학대 OX 퀴즈 · 4
05. 아동학대 OUT! 정의로운 판결 · 5

2차시

01. 사랑으로 보살피는 부모 · 6
02. 아이의 성장을 돕는 부모 · 8
03. 공감하는 부모 · 10
04. 부모님께 전하는 나의 이야기 · 12
05. 미래의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 13

부록

- 부모님과 함께 알아보는 아동학대 · 14

본 책자와 강의안, 교사용 해설서는 인권국(www.hr.go.kr) 자료실(여성아동인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차시 01 아동학대는 무엇일까?

- 아동학대에 대해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아동학대?



Part 02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권리



생존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보호권

학대와 차별, 폭력, 힘든 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1차시 03 아동학대를 찾아라!

- 다음 글에서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토의해 보세요.

아침이 되었는데도 아빠, 엄마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 철수가 동생들을 깨워 씻기고 아침을 먹이고, 동생들 준비물까지 챙겨 주느라 시간이 없어서 오늘도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요.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은 학원에 가지만 철수는 갈 곳이 없어요. 철수가 학원에 가고 싶다고 조르는 날에는 엄마가 아빠에게 돈이 없어서 못살겠다고 소리지르고 크게 싸워요. 그럴 때마다 철수와 동생들은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어요.

술에 취해서 들어오신 아빠는 철수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동생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너희만 없어도 편하게 살았다." 라고 소리지르며 동생들을 마구 때려요. 지난 주에는 동생들을 감싸던 철수를 때려서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고 입속에 피가 많이 났어요.



엄마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오셨어요. 철수와 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 몸에 땀이 나고 옷도 더러워졌지만 씻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청소한 지도 오래되어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해요.

1차시
04 아동학대 OX 퀴즈

아래 사례를 읽고,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면 'O'표, 아니라고 생각하면 'X'표 하세요.



사 례	학대일까? 아닐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자녀가 어려서 글을 모른다고 한글 자막이 나오는 외국의 음란 성인영화를 함께 시청했어요.	
반찬 투정을 하는 자녀에게 "이럴 거면 먹지 마."라고 하며 밥을 빼앗고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벌을 주었어요.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는 초등학교 자녀에게 "누구 닮아 한심한 짓만 하느냐"고 모욕감을 주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늦은 시간에 술집에 갔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자녀에게 밤을 새워 공부하도록 강요하고 잠을 잘 수 없도록 감시했어요.	
부모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서 써 버린 아이의 버릇을 고친다며 추운 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과자만 먹겠다며 떼를 쓴 5세 아동을 불 꺼진 방 안에 가둬두고 1시간 동안 반성하라고 했어요.	
잘못을 한 자녀에게 "너의 잘못은 내가 널 잘못 키운 거다. 그러니까 나를 때려라."라고 하면서 부모를 때리도록 시켰어요.	

1차시
05 아동학대 OUT! 정의로운 판결

사례 1 을 참고하여 사례 2 ~ 사례 3 의 판결을 내려 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토의해 보세요.

아동학대 사례	내가 생각하는 판결
<p>사례 1</p> <p>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10세 된 자녀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p>	징역 6월,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p>사례 2</p> <p>8세 의붓딸을 키우고 있던 박 씨가 1시간가량 무자비하게 아이를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렸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찢어 사망하였습니다. 박 씨는 의붓딸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p>	
<p>사례 3</p> <p>마트 앞에서 70대의 B씨는 9세, 11세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두 아이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p>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는 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아동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국가(검사)가 지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할 때 자신의 피해를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차시 01 사랑으로 보살피는 부모

철수는 예쁜 영화와 만나 결혼하였고,
사랑의 결실로 아기가 태어나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며
자신은 어릴 때 아픈 경험이 많지만
앞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하며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100일간은 아이도 엄마, 아빠도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시련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태줄로 양분을 공급받으며 인락한 열 달 살이를 했던 아기는 먹고, 싸고, 자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잘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아기 목욕시키기는 단순히 아기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기가 정신적·감정적인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초보 아빠, 엄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신생아 목욕시키기'의 매뉴얼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 목욕 전에 아이 몸에 ()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침 또는 ()이(가) 날 때는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 옷을 벗긴 후 엄마 손에서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얇은 가제나 ()으로 아기 몸을 감싼다.
- 목욕은 () → 가슴 → () → 팔·다리 → ()의 순서로 진행한다.

잠 못드는 밤 아이는 울고



늦은 밤 퇴근 후 지쳐 집으로 돌아오면 날 향해 방긋 웃어 주는 아이가 그저 사랑스럽기만 하다.
피곤하지만 아이를 깨끗이 씻긴 후 재울 때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가 날아갈 만큼
행복하다. 그런데 밤늦게 잠이 들려고 하자 시작되는 아이의 울음에 나는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다.
아내는 아이를 살살 달래 다시 재우려고 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기는

커녕 대성통곡이어서 정말 우리 둘 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처음에는 '제발 울음만 그쳐다오.'라는 마음으로 달래 보았는데
아무 소용도 없고 점점 더 크게 울어버리니 나도 같이 엉엉
울고 싶어졌다.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내와 나는 너털너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 철수의 육아일기 中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첫 번째
Tip!

애착 형성은 신생아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존감의 첫 번째 요소는 충분히 사랑받는 경험, 바로 애착입니다. 아이는 만 2세까지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를 보내게 되며, 안정적 애착은 사회성과 정서 발달의 기본 조건이며 뇌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입니다.

- 1 아이를 많이 안아 주세요.
- 2 아이와 자주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꾸준히 해 주세요.
- 3 아이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세요.
- 4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세요.
- 5 아이의 이름을 많이 불러 주고, '사랑해'라고 말해 주세요.

2차시 02 아이의 성장을 돕는 부모

시간이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철수와 영희는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넘치는 사랑만큼 아낌없이 아이의
재능을 지원해 주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는 아빠와 엄마가 의논하여 일치된 양육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교육, 훈육할 때에도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잘못된 점과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이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훈육한 뒤에는 아이를 안아 주는 등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 주어 아이가 안정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자녀에게 부모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아래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1. "너만 힘드니, 아빠(엄마)도 힘들다."

→

2.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속을 썩이니?"

→

3. "네 형(동생, 친구)은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니?"

→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 사랑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함께 아내의 학생이 되었다.

아이를 야단치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아이는 늘 풀이 죽은 모습이다. 학업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니 모르는 척 하는 수밖에.....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니 모르는 척 하는 수밖에.....

"여보, 옆집 애는 받아쓰기 항상 100점 맞고 영어책도
줄줄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만 늦은 거면 어쩌죠?
이러니 유치원 때 영어를 시켰어야 했는데....., 아휴
속상해."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아내에게 짜증 섞인 말로
답을 하지만 나도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 철수의 육아일기 중 -

나는바보같이
이것도 몰라?
누굴 닮아 이래니!



두 번째 Tip!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아이의 체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켜야 할 원칙 및 벌칙은 명확하게 아이 스스로 세우도록 지도하고 이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1. 바라는 행동과 지침들을 명확하게 세워 주세요.
2. 규칙을 세울 때는 아이를 참여시켜 주세요.
3.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규율을 실행하세요.
4. 아이가 즐겁게 참여하고 성취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실질적인 기회를 주세요.
5. 지속적으로 아이를 모니터링하며, 과업을 어려워하는 아이는 도와주고 과업을 쉽게 수행하는 아이에게는 새로운 과업을 제시해 주세요.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 -

2차시 03 공감하는 부모

키가 자라는 만큼 생각도 자라고
어느덧 아이는 엄마 아빠와 비슷한
성인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풍노도 시기의 사춘기라고
걱정하지만 철수와 영희는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처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맘껏 펼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점점 외계인이 되어 간다

요즘 들어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 적어졌다.
집에 오면 방문을 '쾅' 닫은 채로 나오지도 않고 휴대전화만
들고 뒹굴고 있는 아이에게 서운하기만 하다.
밤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붙들고 여자친구와 시시
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화가 나기도 하고,
전화요금이 걱정되기도 한다. 공부를 안 할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자고 학교에서 좋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릴 땐 공부도
곧잘 하고 애교도 부리고 참 사랑스러웠는데,
점점 커갈수록 외계인이 되어 가는 것 같다.



- 철수의 육아일기 中 -

청소년시기에 나타나는 행동들은 '사소한 행동'과 '심각한 행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에는 지나친 음악 선호, 거친 말투와 행동, 가족모임에 참 참여하려 하지 않는 것,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이때 부모의 역할은 자녀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 혹은 조언을 하지만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수용하는 '충고자' 역할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불안장애, 우울, 섭식장애, 알코올과 약물남용, 성적학대와 성비행과 같은 심각한 행동에는 문제를 논의해 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협상자'의 역할을 하고, 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자녀의 입장과 상관없이 해결책을 내놓는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상황에 따라 관찰자, 충고자, 협상자, 관리자 중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찾아보고,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1. 패션에 대한 지나친 관심 ()
2. 인터넷 게임에만 집중하는 중독 상태 ()
3. 지각을 하는 등 품행이 바르지 못한 문제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세 번째
Tip!

To do! Don't to do!

부모는 청소년 자녀에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 청소년 시기에 적합한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능동적인 경청	논쟁을 일으키는 말 건네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잔소리
즐거움의 공유	세뇌
정적강화(칭찬과 격려)	다툼


2차시
04

부모님께 전하는 나의 이야기

○ 각 주제에 맞게 자신이 바라는 부모님의 모습을 적어 보세요.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은 듣고 싶어요!

 이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미안하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잘 몰랐단다.



이제부터는
잘할게,
사랑한다!

2차시
05

미래의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 미래의 자녀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

~~~~~




부모님과 함께 알아보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후유증

유형	내용
신체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이 발생함.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임. 성인기 자아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되풀이할 수 있음. 성인이 되어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 등에 영향을 미침.
정서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기의 정서 학대는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 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음.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
성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 문제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음. 아동의 나이, 지속 기간, 학대 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됨.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함.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함. 학습 준비도가 떨어짐에 따라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임.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부모 중 일부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속에 신체폭력을 자행하기도 함.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
-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아동학대는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사라는 관점 대신에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아동의 문제행동을 ‘나 같아도 때리겠다’, ‘이런 애는 어떻게 키우나’라는 편견을 버리고, 가족 내 적절한 양육과 교육 문화의 정착이 필요함.
-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아동에 대한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경우, 보호자의 방임 등 아동학대가 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작은 행동 하나가 아동에게 돌아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함.
- ‘왜 아이가 피해 사실에 대해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동은 만성화된 학대 피해로 무력감과 좌절,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아동 심신 상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시간적 배려가 필요함.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
-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

■ 진술조력인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진술과 행동 특성에 관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아동·장애인에 대한 조사 또는 재판 시에 동석하여 의사소통을 조력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신청



아동학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상담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함.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	전화	02-558-1391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및 가정 폭력(아동학대 포함)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여성가족부 산하)로 전국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 저점병원에 병설되어 있음. 사회복지사, 경찰, 행정직원, 진술조력인 등이 24시간 동안 상주하여 피해자 조사 및 상담, 기타 법적·행정적·의료적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전국 해바라기센터 안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womanchild.or.kr	전화	02-735-7510

※ 통합형, 위기 지원형 위기 지원 및 지속 지원 / 365일 24시간 모든 성별, 연령

※ 아동·청소년형 지속 상담 및 치료 / 월~금 오전 9시~18시

■ 스마일센터

대한민국 법무부가 설립한 범죄피해자 전문심리지원기관으로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의학적 진단,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 범죄 발생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

전국	기관이름	연락처	구분	기관이름	연락처
서울	서울스마일센터	02-472-1295	부산	부산스마일센터	051-582-1295
인천	인천스마일센터	032-433-1295	광주	광주스마일센터	062-417-1295
대구	대구스마일센터	053-745-1295	춘천	춘천스마일센터	033-255-1295
전주	서전주스마일센터	063-246-1295			

※ 24시간 연중무휴



우리의 신고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고전화는

112



신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챙기시면 됩니다.

- ①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②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③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 ④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